

# '전주형 메타버스' 구현 박차

### 전주시, ICT 분야 전문지식 겸비한 전문가 3인 메타버스총괄자문관 위촉 2023년 8월까지 정책 기획~사업 수행단계까지 종합적 검토·자문 역할

'전주형 메타버스' 구현에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지식을 겸비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메타버스 TF 자문위원이 2명이나 포함돼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전주시는 임태범 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본부장과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지능데이터연구실장, 우운택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등 3인을 메타버스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는 임태범 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본부장과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지능데이터연구실장, 우운택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등 3인을 메타버스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부 디지털사업 자문위원과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태범 본부장은 정부의 다양한 ICT 정책 사업을 추진한 전문가로, 메타버스 특화사업 발굴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 가상융합, AI(인공지능) 연구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이승환 실장은 기획재정부 메타버스 TF 자문위원, 과거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및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력을 바탕으로 전주형 메타버스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에 힘쓰게 된다.

우운택 교수의 경우 카이스트 AR리서치센터장, 대통령직속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기획재정부 메타버스 TF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만

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자문관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메타버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사업 수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전주시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전략 등 총괄 조정 ▲메타버스 국책사업 발굴 및 시정 적용 가능 분야 제안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등 제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연계 공모 활동 등에 힘을 보탠다.

시는 이번 메타버스총괄자문관 위촉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저변 확대를 위한 TF팀을 본격 가동해 메타버스 국책사업 발굴 및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등 전주형 메타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가상세계가 새로운 세상을 대체할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메타버스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전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를 만능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공영자전거 '꽃싱이' 이용 편의 높인다

### 대여소 2곳 추가해 9개소까지 확대·종류별 자전거 추가 비치

전주시가 공영자전거 '꽃싱이'의 대여 장소를 확대하고 대여 방법을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하는 등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현재 7개소에서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경우 평화동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2곳을 추가해 9개소까지 늘리고, 각 대여소에는 종류별 자전거를 추가 비치하기로 했다. 또 QR 코드를 활용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여소의 대여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또 전번 3개소에 자전거 진출입로를 추가 개설하고 대성동 한옥마을주차장 주변의 자전거 길을 정비하는 등 공영자전거 이용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전거 수리·점검반이 매일 대여소를 순회함으로써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여소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방역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공영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대여소 위치와 대여시간, 요금 등의 정보를 담은 리플릿 1만2000매를 제작해 각 아파트 단지와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비치



전주시가 공영자전거 '꽃싱이'의 대여 장소를 확대하고 대여 방법을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하는 등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하고, 자전거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평화의전당 주차장 ▲전주향교 앞 전주전번 ▲트윈호텔 맞은편 간담대 작은도서관 입구 ▲전주자연생태관 입구 ▲송천동 서희차 아파트 건너편 전주전번 ▲삼천동 용흥중학교 앞 삼천전번 ▲이중대여소 등 총

7곳에 있으며, 284대가 이용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몰시간을 고려해 하·동절기에 탄력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1회 1000원이다. 만 14세 이하 이용자는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보험에도 가입돼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전과 한옥마을 주변, 치명자산 성지 등 둘러볼 거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면 근거리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가족·친구들과의 나들이에 즐거움이 배가될 것"이라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자전거 운영관리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주시공영자전거명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주시 공영자전거 명칭인 '꽃싱이'는 전주의 정신 '꽃심'과 '심심하다'의 합성어로, 전주의 강인한 힘과 맑고 생기 있는 도시를 자전거를 이용해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교통 분야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전주시민들이 주차차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청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시청에 따로 물어보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전주시가 교통 분야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징수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시는 한 부서에서 윈스톱으로 운영 하는 통합징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과목은 ▲객과화물차 동차과태료 ▲책임보험·검사지연과태료 ▲장애인 구역 주차차 과태료 ▲주차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으로,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압류정보를 연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국가 체납과태료와 타 시·군의 체납액은 문의·납부할 수 없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 2979명 대상 1인당 80만원 추석 전까지 지급키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시내·시외버스 기사 1556명, 전세버스 기사 416명, 법인택시 기사 1007명 등 총 2979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라북도 2차 추경에 편성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은 그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내·마을버스 및 시외·고속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들이다. 다

만 시내(마을)·시의(고속)·전세버스 기사는 올 6월 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지난달 13일까지, 법인택시 기사는 올 6월 1일 이전(1일 포함)에 입사해 지난달 3일까지 근무한 자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일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운수종사자의 근속사항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운수업계에 타격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신청

### 전주시, 1인당 25만원 신용·체크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로 지급

전주시는 오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해당자와 특례 기준이 적용된 맞벌이·1인 가구 88% 이내 시민이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 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여부는 오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카카오톡(페이) 앱에서, 13일부터는 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조회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개인별 25만 원씩 신

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현장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두 가지 중 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 및 콜센터, 전주시사랑상품권(돼지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시행 첫 주인 오는 1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가 적용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로 각 동 주민센터 및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하면 된다.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은 경우 전북은행 각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말 신청은 불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민지원금 총액은 익일 이뤄진다. 사용처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소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문의는 콜센터(288-7590~4)와 정부콜(110), 전담콜센터(1533-2021) 등으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